마태복음 족보 해설 (마태복음 1장1-17절)

본 단락은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 첫 14 세대는 다윗 왕까지고 둘째 14 세대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마지막 14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이다. 다윗 왕과 바벨론 포로기와 그리스도의 탄생은 족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다윗에 의해 든든하게 세워졌던 왕권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 무너져 버렸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구조를 보여준다.[1] "14"라는 숫자는 다윗 왕의 이름과 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윗(דוד)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볼 때 달렛(ד)과 와우(ו)와 달렛(ד)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은 나름대로 수(數)를 가리키기도 한다. 즉 달렛(ד)은 숫자 4에 해당하고 와우(ו)는 숫자 6에 해당한다. 결국 다윗이란 이름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14(ד=4 + ו=6 + ד=4)가 된다. 마태는 "14"라는 숫자를 통하여 예수는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받은 분임을 암시하고 있다.[2]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마태는 주로 헬라어 구약성경 칠십인 역본[3](LXX)의 역대상 1-3장을 따르고 있다.[4]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한다.[5]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다말,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언급된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모두 결혼 생활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다. 근친상간에 관련된 다말, 기생이었던 라합, 본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하게 된 룻, 간통 당한 밧세바 등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전통은 이 여인들을 칭송하고 있다. 다말의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하며(창 38:26), 라합을 "의로운" 여인이라고 하고(히 11:31, 약 2:25), 룻은 메시야의 조상으로 여겼으며, 밧세바의 경우에도 다윗의 행위를 꾸짖었지 밧세바는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여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올라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꼭 일상적인 관습 안에 갇혀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태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parthenogenesis)을 소개하면서 이성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의 사건을 선포한다. 스땅달(Stendahl)은 이것을 "하나님 섭리의 불규칙성"(divine irregularity)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한다.[6] 이 여인들이 갖는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이방인이란 것이다. 기독교 이전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다말을 이방 여인으로 불렀으며[7] 라합과 룻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고 밧세바는 이방 남자 우리야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된 경우이다. 이런 이방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온 이유는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8]

마태 족보는 예수의 합법적인 혈통을 밝히는 역할도 한다. 그 이유는 당시의 상황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예수도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시곤 했으며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했던 것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이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 왔던 메시야임을 믿었기에 성전에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게 일어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교 성전이나 회당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족보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 했을 것이다. 둘째로 예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믿는 기독교 전승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첼수스(Celsus:주후 170-180년경)는 이미 "예수는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유대인들의 조롱을 알고 있었다. 이런 기독교를 반박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당시의 전해져 내려오는 족보를 토대로 예수는 합법적인 다윗의 자손이며 "다말, 라합,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초

---

1) Willoughby C. All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77) 2

2)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New Century Bible, (London: Oliphants, Marshall, Morgan and Scott Blundell House, 1972) 74; John J. Kilgallen, *A Brief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Lewiston, NY: 1992) 8

3) 마태가 사용한 구약 인용문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 역본(LXX)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것도 사해에서 발굴된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루키안 본문과 관련된 옛 팔레스타인 전승 칠십인 역본 본문(LXX[L])들에 가깝다. 참조, F. M. Cross, Jr.,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New York: Doubleday, 1958) 124 이하

4) 마1장2절=대상1:34,2:1, 마1장3절=대상2:4,5,9, 마1:4-6절=대상2:10-13, 3:5,10-15, 마1:12절=대상3:17-19, 마1:13-16절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다. 그러나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기간에 기록된 유대인 자료들이나 또는 아람어로 기록된 문헌들에 의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Edfu 파피루스(주전 3세기)에 유사한 이름들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있고, Aristeas 서신에 언급된 70인역 번역자 이름들 가운데, 요세푸스의 글이나 아람어로 된 파피루스 가운데 그리고 주후 1세기 묘비들 가운데서 이들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참조, W.F. Albright and C. S. Mann, *Matthew*, 3;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74

5) Crai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78

6)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74; Ulrich Luz, *Matthew 1-7, A Commentary*, 109; Keener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 라헬 같은 여인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어 아이를 낳는 기적을 체험한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마태족보에 여인들만 "하나님의 불규칙성" 이란 틀로 보는 것을 반대 한다. Crai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79

7)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여겼다. Pseudo-Philo의 *Biblical Antiquities* 9:5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거절한 다말을 칭찬한다.

8) Eduard Schweizer,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tthew*, trans. by David E. Green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25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가 탄생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9]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족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제사장들 계열에 대한 족보는 공식적으로 계속 보관되어 왔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를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헤롯 1세(주전 37-4)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매인"이라 부르는 에돔 사람이었다. 이런 헤롯은 통치 당시 정통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은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사람 안티고누스가 유대 민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헤롯 1세가 죽고 팔레스타인은 셋으로 나누어져 헤롯의 혈통을 이어 받은 세 아들이 다스렸다.[10] 이방 혈통을 가진 헤롯 가문의 통치자들은 당시에 유다 왕이나 귀족의 혈통을 알려주는 많은 공식적인 기록들은 없애버렸을 것이다.[11] 단지 개인적 기록들만 보전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3:23-38)는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마태와 누가 족보는 다음과 같이 서로 일치하는 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는 요셉을 통해 이어온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parthenogenesis)이고 기적의 사건이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1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는 점도 많다. 누가는 다윗 왕부터 그리스도까지 4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단지 28 명만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참조, 삼상 3:23-38)을 통하여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마태는 왕의 혈통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는 예수의 혈통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는 예수가 왕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가의 족보(3:23이하)나 헬라식 족보는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상을 찾아 올라가는 순서를 보여준다. 이런 경우에 족보의 중심은 기록된 마지막 조상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태의 족보는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손에게 내려오는 순서로 적었다. 이런 경우에는 족보의 초점은 마지막에 언급되는 후손에게 있는 것이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도 결국 마지막 이름인 노아에게 중심이 있으며 곧이어 노아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노아의 족보인 셈이다. 마태도 "족보"란 헬라어 구절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비블로스 게네세오스)만 창 5:1절을 따른 것이 아니라 족보 형식도 창세기를 따르고 있다. 결국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의 족보인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태 족보의 조상들이 족보에 기록된 마지막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연관되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9) Willoughby C. All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7

10) 헤롯 1세는 사마리아 출신인 4번째 부인 말따케(Malthake)를 통해 주전 25년경에 아켈라오를 낳고 주전 23년경에 헤롯 안티파스를 낳았다. 또한 예루살렘 출신인 5번째 부인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주전 24년경에 빌립보를 낳았다. 아켈라오는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고,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으며, 빌립보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4년까지 북부 트랜스 요르단을 다스렸다.

11) 주후 1세기까지도 유대 땅에 족보들이 있었다. 에스드라의 족보 (2 Esdras 1:1이하), 토빗의 족보 (Tobit 1:1), 유딧의 족보 (Judith 8:1), 마카비의 족보 (1 Maccabees 2:1) 등이 이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요세푸스는 제사장 족보 등과 같은 공식 기록들이 보관되고 있었다고 한다 (Josephus, *Against Appion* I:7, *Life* 1). 아프리카누스 (Julius Africanus)는 헤롯 왕이 이런 기록물들을 없애 버렸다고 한다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1. 7. 13). Jack P. Lew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Part I(1:1-13:52), The Living Word Commentary, (Austin TX: Sweet Publishing Company, 1976) 36

12) W.F. Albright and C. S. Mann, *Matthew*, The Anchor Bible, 9th ed,(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2) 6

귀납적 방법에 의한 골로새서 1장1절 주석

구절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구절 관찰 해석

1:1 본 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가(구절-의미-설명): 여기서의 "하나님"은 본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 특별하신 분이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거부했던 바울을 변화시켜 예수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이시다. 본 서신을 읽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주적인 분이시다. 본 구절에서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θέλημα(뗄레마)는 "의지, 목적, 목표, 계획"이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란 의미가 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1:1 본래 "예수"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용어-의미-설명) "예수"('Ιησοῦς)는 히브리식 발음 "여호수아"(יְהוֹשֻׁעַ:예호수아)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헬라식 발음 "예수"('Ιησοῦς:예수스)로 되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야후"와 "구원하다"란 히브리어 "슈아"가 결합해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란 의미를 지닌 말 "야호수"로 발음하였는데 음성 변화를 겪으면서 "요수아"가 되었고 이것이 후기에 북부 지방 발음에 영향을 받아 "예수아"가 되었다. 이 "예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예수"('Ιησοῦς)로 쓰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란 "기름을 붓다"란 헬라어 동사 χρίω (크리오)에서 파생한 명사로 "기름부음 받은 자"란 뜻이 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 단어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의 직분을 성별하기 위한 예식이었다(참고, 출 29:7, 삼상 10:1, 왕상 19:16).

1:1 본 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용어-관계-설명): 유대 전통 안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두 종류의 가르침이 있었다. 하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왕권을 가지고 침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낼 것이라는 민족적인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초월적인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는 한낱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다.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본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란 표현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킨 회심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회심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1:1 본문에서 언급된 "사도"란 무엇을 말하는가(용어-의미-설명):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ἀπόστολος(아포스톨로스)는 처음에는 초대교회에서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로 사용되다가 후에는 초대교회 내에 직분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구약에는 사도라는 명칭이 없었지만 사도와 같이 권위를 위임받아 보냄을 받는 경우(왕상 14:6)를 볼 수 있다. 구약 예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보냄을 받아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었다. 모세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애굽으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다. 부활 사건 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위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처음으로 교회 내에서 "사도"라고 불렸다.

1:1 본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구절-의미-설명): 이 구절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사도"란 용어 자체가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절의 "그리스도 예수"는 사도에게 권위를 위임해주신 분이란 의미가 있다. 즉 본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권위를 위임 받은 사람"이란 의미가 된다. 둘째로 "사도"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 절의 "그리스도 예수"는 선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본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된다.

1:1 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하는가(구절-의미-이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또한 당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본 구절을 덧붙인 것이다. 또한 본 구절은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을 묶는 표현이기도 하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부여받아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도이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골로새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런 수직 관계를 설정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이다. 본 구절은 골로새서가 사사로운 개인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사도적 권위 아래 기록된 말씀임을 밝히고 있다. 만일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골로새서가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1:1 왜 바울은 골로새서 첫 문장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했는가(구절-의미-이유): 먼저 골로새서 첫 문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혔다.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신을 읽을 수 있다. 본래 사도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붙였던 칭호였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였다(행 9:1-6, 26:12-18).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다(행 9:15).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언급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바울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또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확신하였으며 또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1:1 왜 헬라어 문장을 보면 "바울"이란 이름을 맨 처음에 기록하였는가(용어-구조-설명): 헬라어 본문을 보면 문장의 첫 단어가 "바울"이다. 이 이름은 골로새서에서 맨 처음 소개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당시 편지 형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편지에서 첫 단어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의 이름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1:1 "디모데"란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용어-의미-설명): "디모데"란 이름은 "귀하게 여기다, 공경하다"란 헬라어 동사 τιμάω(티마오)와 "하나님"의 헬라어 이름 θεός(떼오스)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닌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의 한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자라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의 첫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를 방문했다(행 14:8-21). 아마도 바울은 이 여행 때에 젊은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참고, 딤후 1:5)를 만났을 것이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를 방문했었다(행 16:1-3).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그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딤전 1:2). 디모데는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에서(딤전 3:2,6), 고린도에서(고전 4:17, 16:10), 그리고 마도냐에서(행 19:22) 바울의 조력자로서 큰 활약을 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울의 마지막 여행에도 동행했다(행 20:4). 또한 신약에 있는 여섯 개의 서신들에서 디모데는 바울과 공동 집필자로 소개되었다(고후 1:1, 빌 1:1, 골 1:1, 딤전 1:1, 딤후 1:1, 몬 1).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가 있는 브루기아 지방을 함께 여행하면서 비록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골로새 출신 교인들 즉 에바브라, 빌레몬, 아킵보, 압비아 등을 만났다.

1:1 본 절에서 디모데에게 붙인 칭호 "형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용어-의미-설명): "형제"란 가정 구성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분명한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피붙이 형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절의 "형제"는 영적인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끼리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본 절에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형제가 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형제가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서로 형제, 자매, 모친이란 마태복음 12:50절에 있는 예수의 말씀 또한 "형제"란 용어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된다.

1:1 왜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를 언급했을까(용어-관계-이유): 발신인 이름으로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본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4:18절에 의하면 골로새서가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같이 있던 디모데가 받아서 쓰고 편지 끝에서 바울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이 있다. 이런 연유로 디모데가 골로새서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된 것이다.

"잃어버린 영성을 찾아서"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Sola Scriptura)란 구호를 외치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에 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알맹이와 껍데기가 뒤바뀐 세상이 되었습니다. 알맹이는 성경본문이고 껍데기는 학문, 교리, 신조, 간증, 예화 등입니다. 껍데기는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껍데기를 알맹이로 착각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잠시 껍데기를 내려놓고 알맹이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본질인 말씀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외적인 성장과 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면서 내적인 성숙을 상실했습니다. 기독교의 깊은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보다는 교리별 주제별에 따른 성경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리나 주제에 따라 성경본문을 여기저기에서 짜 맞추어 놓은 가르침에 익숙해졌습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가기 보다는 성경 안에 이 책 저 책에서 필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엮어놓은 가르침에 익숙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 여러 교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서로 다른 교리들이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큰 문제는 성경을 직접 대면하여 스스로 진리를 찾기 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받아먹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리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집중해서 천천히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묵상하고 진리를 찾아내려는 수고는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런 수고를 누군가 대신해주고 그저 그 결과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크리스천들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참된 능력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이나 통독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단들이 성경본문을 들이대며 설명을 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단순히 쫓아내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감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묵상 수련법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묵상 수련법을 "렉찌오 디비나"(Lectio Divina)라고 불렀습니다. Lectio(렉찌오)는 라틴어로 "독서"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Divina(디비나) 역시 라틴어로 "신성한, 영적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찌오 디비나"는 "신성한 독서" 또는 "영적인 독서"란 말입니다. 깊은 영성을 위해 성경 본문을 신성한 마음으로 읽어가는 수련법이기 때문에 "렉찌오 디비나"를 한글로는 "영성 독서"라고 부릅니다.

이 "영성 독서"의 기원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은 아내가 될 리브가를 처음 맞게 되는 그 시각에 "묵상을 하기 위해서"(ad meditandum) 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시편 1장 2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묵상하는"(in lege eius meditabitur)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깊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meditation)하던 구약의 "영성 독서"의 전통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전승되었고 이후 오랫동안 수도원 내에서 실천되어 왔습니다. 본래 기독교인들은 매일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영성 독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한 것만 쫓는 세상에 물들어서 성경 안에 진리를 밝혀주는 "영성 독서"(Lectio Divina)의 수고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윤리나 도덕을 계산하려는 생물학

옥스퍼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윌리암 헤밀턴(William Hamilton)을 진화론의 원조 찰스 다윈(Darwin) 이후 가장 뛰어난 다윈주의자라고 언급했다. 헤밀턴은 다윈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헤밀톤이 풀어낸 공식이 곧 rB〉C인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중심이 되는 원리는 곧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이었다.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다. 종들은 생존을 위해서 부적절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한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지 못한 종들은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된 종들은 그 변화의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면서 살아남게 된다. 이와 같이 거친 자연환경에 적응하도록 종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선택하는 것을 다윈은 "자연선택"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다윈의 자연선택의 근저에는 거친 자연환경 안에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기주의적 논리가 들어 있다. 이런 다윈의 논리에 거치는 것이 자연 안에 있는 생물들의 "이타주의(Altruism)"이었다. 어떤 생물들을 보면 남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들이 관찰된 것이다. 다윈은 종들 가운데 이타주의가 자신의 자연선택 이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흡혈 박쥐라는 놈이 있다. 가장 깜깜한 밤중에 동굴에서 나와서 지면 위로 낮게 나르면서 냄새와 음향으로 먹이를 찾는다. 먹이가 발견되면 먹이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한다. 약간 떨어져서 조용히 땅 위로 내려앉는다. 그리고 먹잇감의 혈관에서 나는 소리를 향해서 날개로 걸어서 접근한다. 수술 칼보다 더 날카로운 두 이빨로 살을 찢어 상처를 낸다. 그리고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빨아먹는다. 어떤 때는 자신의 몸무게에 해당할 만큼 피를 빨아먹는다. 재미있는 것은 이 흡혈 박쥐란 놈이 매우 이타주의적, 다시 말하면 자기희생적인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 박쥐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수백마리 때로는 수천마리가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 박쥐들은 계속해서 먹어야만 살 수 있다. 먹지 못하면 60시간 안에 굶어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박쥐들은 특이한 방법으로 먹이를 나누어 먹고 산다. 만일 한 흡혈 박쥐가 그날 밤 먹이를 찾지 못하면 그놈은 동굴 안에서 먹이에 성공한 동료 박쥐를 찾아 주둥아리를 핥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두 놈은 입을 맞댄다. 그리고 먹이로부터 피를 빨아온 박쥐는 배에 채웠던 피를 토해내고 실패한 박쥐는 그것을 받아먹는다. 만일 그런 먹이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흡혈 박쥐의 80퍼센트 이상이 매년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흡혈박쥐만이 아니다. 꿀벌들은 벌집을 지키기 위해서 벌침을 쏘면서 자살한다. 새들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남의 자식을 키운다. 인간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다. 자연선택 이론에 의하면 산다는 것이 잔인한 생존경쟁일진데 어떻게 그런 자기희생적인 동물들이 번식하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다윈 이후 진화론에서 계속되어왔던 고민이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헤밀턴이 196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한 공식이 "rB〉C"였던 것이다. 이 공식은 만일 종들끼리의 관계성(r: relatedness)이 고려될 때, 어떤 행동이 주는 유익함(B: benefit)이 그 개체가 지불해야 할 희생의 댓가(C: cost)보다 크면 그 종의 자기희생적인 이타주의 유전자들은 진화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서로의 관계(r)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헤밀턴의 이론은 "적합성(fitness, 한 개체가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정의한 다윈의 이론을 "한 개체(individual)"에서 "친족들(relatives)"까지 확대시켰기 때문에 "포괄적 적합이론(inclusive fitness theory)"라고 부른다.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주의도 진화한다는 것이다. 헤밀턴은 자연에 있는 생물들의 이타주의를 수학으로 풀어낸 셈이다(물론 헤밀턴 이론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난 하바드대 교수 곤충학자 E.O.Wilson같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정답이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 여전히 자연 생물들의 "이타주의의 진화"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참된 이타주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관대함이라는 것이 생존의 특징이냐? 살아있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주의적이냐? 관대함은 단지 가면이냐? 더 나가서 과연 이타주의, 남을 위한 자기희생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한단 말인가? 등의 문제들이 생겨난다.

Vanagon 이야기

언제였는지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충 4년 전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뭔 일이 있어서 권사님 댁을 찾아갔다. 아마 그 전에도 몇 번 갔었을 터인데 오늘 따라 집 앞 길거리에 처음 보는 노란 Van이 서 있었다. 길 뒤쪽으로 주차하고 권사님 집 쪽으로 걸었다. 눈앞에 Van 유리에 붙어있는 종이에 For Sale이란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권사님을 만난 후에 남편되는 파커씨에게 집 앞에 있는 노란 Van에 대해 물었다. 당시 헬리콥터 조종사 장교 출신으로 민간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파커씨는 웃음을 지으면서 입을 열었다. 본래 자기가 쓰던 차인데 너무 오래되어 차가 낡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매연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과 못하면 운행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정비소가서 고치려면 비용이 이만저만 드는 것이 아니란다. 하는 수 없이 3,000불에 팔아버리기로 결심했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다는 것이다. 판 돈은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본래 고치고 뜯어 붙이는 일에는 흥미가 내게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그 차가 뭔 차이냐고 물었다. 파커씨는 차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신이 나서 그 Van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본래 자기 아들하고 놀러 다니기 위해서 샀던 것이다. 그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차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 뚜껑을 들어 올렸다. 웬걸. 차 지붕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더니 지붕 밑에 있던 침대를 펼친다. 거기에 두 명이 잠을 잘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뒷 좌석도 펼쳐지기 때문에 침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두 명이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차 내부에 들어 있는 부엌을 설명해준다. 가스 렌지가 두 개가 있다. LPG 가스통이 차에 달려 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그릇을 씻는 싱크대, 냉장고, 옷장, 등을 소개했다. 미국에서 15년 살았지만 이런 차는 처음 구경하는 나였다. 설명을 들으면서 입이 벌어질 지경이었다. 내심 이 차를 고쳐서 내가 써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마음에 차오르자 파커씨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에서 이 차를 내게 달라는 말이 튀어 나왔다. 파커씨가 놀란 기색을 했다. 이어 나는 내가 손재주가 좀 있으니 고쳐서 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장담했다. 목사가 차를 고친다는 것을 반신반의, 그것보다는 걱정하는 기색으로 별다른 주저함 없이 차를 그냥 내주었다. 차 키와 차 문서를 건네받는 순간 나에게 차가 새로 한대 생긴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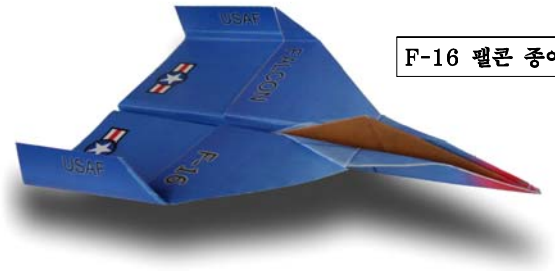
미국에는 차가 필수다. 그런데 보스턴에서 가지고 내려온 차 한 대 가지고 네 식구가 사용하려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차 한 대 Van이 생긴 것이다. 1983년도에 독일 Volkswagen에서 만든 Vanagon이었다. 오래전에 이미 단종된 차종이었다. 아무래도 좋았다. 차가 한 대 더 생겼으니. 내게는 미련할 정도로 도전해보는 모험심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차키를 받으면서도 자신만만했다. 차를 집으로 끌고 오면서 몇 번이고 길가에서 차가 설 뻔 했다. 4단 기어로 된 차였다. 이 Van의 기어를 넣는 것이 아직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부터 기어 넣는 차로 단련된 나에게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Vanagon을 집 차고에 집어넣었다. 중요한 과제는 매연검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차를 수리하는 것이다.

이달의 종이비행기

F-16 팰콘 전투기

이경화 제공



F-16 팰콘 종이비행기

이 종이 비행기는 필자가1969년 UNM대학에 유학생으로 알버커키에 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에 두고 온 두 아이를 생각하며 이들이 오면 보여주려고 고안해서 접었던 종이비행기이다. 약 30년이 지난 뒤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종이접기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도서관에 찾아가 여러 문헌조사를 해보니 아무도 30년 전에 접었던 이 비행기와 유사한 종이비행기를 발표한 책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어 필자의 홈페지에 이를 소개하면서 F-16이란 이름도 부쳤고Copyright에 등록도 하였다. F-16의 날개와 몸체의 연결부분에LEX로 알려진 미니 델타형 날개연결 부분이 종이비행기 모양과 비슷한 점을 고려해서 F-16이란 이름을 붙였다.

F-16 파이팅 팰콘(Fighting Falcon)은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현 록히드 마틴)에 의해 개발된 다목적 전투기이다. 1978년 부터 미공군을 위해 배치 운용되기 시작했고 수출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25개국에서 운용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4,400대 이상이 생산되었다. 한국 공군은 F-16C/D를 40기 도입 하였고 국내 면허 생산한 KF-16을 120대를 포함해서 170대를 운용하고 있다.

택사스 상공을 비행중인 폴랜드. 공군의F-16C(LMTAS photo)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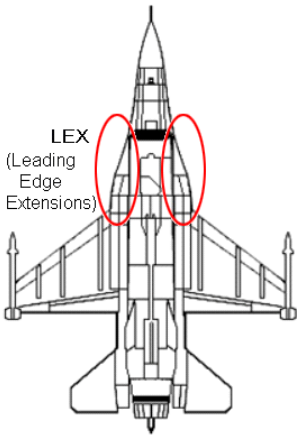
F-16은 알버커키에 있는 커트랜드 공군기지의 주방위군 비행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이기도 하다. 필자는 주 방위군 150 비행단에 있는 파이로트에게 나의 F-16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보내 준일이 있다. 그의 답례로 비행단의 초청을 받아 기지를 방문하여 F-16 전투기를 자세히 구경하는 기회도 가진적이 있다.

아래의 종이비행기 접는 방법소개는 출판예정인 원고 본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것이다.

F-16 Fal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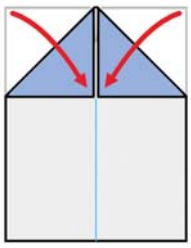
The F-16 Falcon Paper Airplane is my oldest design that has a swept wing with leading edge extensions (LEX). Leading edge extensions are often used with swept wings for the modern fighter jets to improve the flight performance at the high angle of attack. They are typically triangular in shape, running from the leading edge of the wing root to a point near the cockpit along the fuselage. Lockheed Martin F-16 Fighting Falcon is an example that has swept wings with LEX. This paper plane is named "F-16 Falcon" because of unique leading edge extensions with swept wing.

F-16 FIGHTING FAL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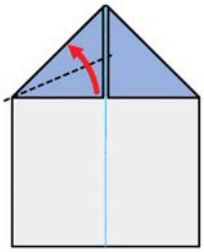


Folding Instru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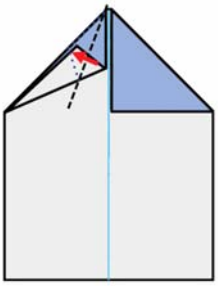
You may download a patterned color sheet from:
www.amazingpaperairplan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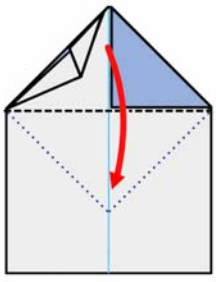
1. Fold the paper in lengthwise and then unfold the paper. Fold the top corners inward to the center cr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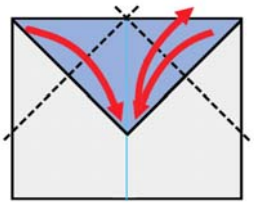
2. Fold the left top layer to meet the sloping edge as indicated by the arr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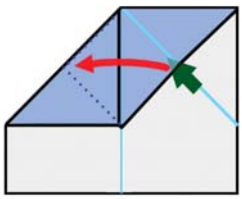
3. Fold the left top layer again as shown in diagram. This part becomes the cock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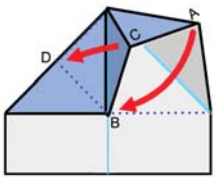
4. Fold the tip down along edge of the triangle top 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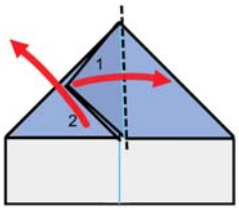
5. Fold the top corners inward to the center crease and unfold the right side cor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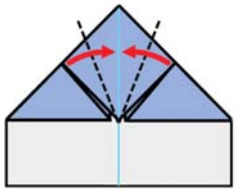
6. Put your index finger under the flap and lift the flap toward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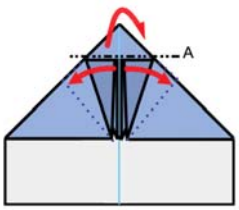
7. Flip the flap to the left side (C meets D) and flatten point A to point



8. Fold this new triangle flap to the right side. Unfold the left side flap and repeat steps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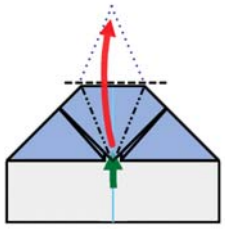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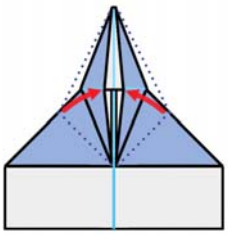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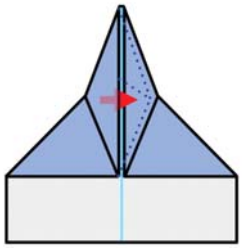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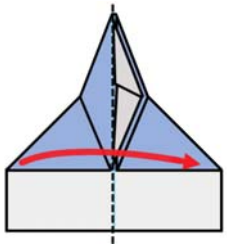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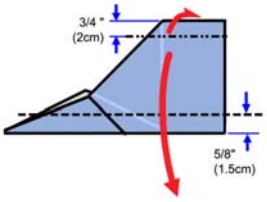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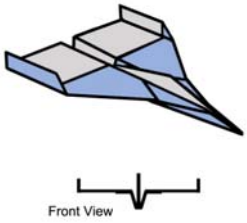


9. Fold both flaps toward the center crease.



10. Make a mountain fold at the top corner section along line A. Unfold both flaps.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11. Put your index finger under the flap. Pull up the tip while pressing the base part.	12. Fold sides in and flatten the nose section.
	
13. Pull out a triangle cockpit flap from the left side of nose section.	14. Fold the model in half.
	
15. Fold the wing tips (mountain fold) and fold down both wings. Keep both folding lines are parallel.	16. Adjust creases to match the profile. Bend up the trailing edge of the wings for better lift.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봉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우육 $11.95
양장피 잡채 $17.95

USA Legal Group, Inc.
A Law Corporation
상해법, 교통사고, 파산법 전문 변호사

Los Alamos 와 Albuquerque 인근에 산불로 인해 ash 가 집 혹은 건물로 날아들어 왔을때 compensation 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직까지도 보험회사로 부터 Los Alamos 산불 이나 Arizona 산불의 연기와 재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을 받지 못하셨거나 deny 되셨나요?
대부분의 화재보험은 외부지역에서의 재나 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clean-up cost이나 replacement cost 를 책임지고 배상해야 합니다.

New Mexico Attorney: Charles Lakins
Donovan Kang(도노반 강): 사무실Office 505-563-5538
직통Direct 505-563-5539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

T 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illegible] o. Especially the Ethnic Ministr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 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 8222)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o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Master Jaeshin Cho(505) 296-0336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